

# 최정·최주환 '홈런 쇼' SSG 창단 첫 승

## 2021 프로야구 개막전서 롯데 격파 키움, 삼성 상대로 개막 2연승 거둬

국내 프로야구에 상륙한 SSG 랜더스가 최정과 최주환의 '홈런 쇼'를 펼치며 개막전에서 창단 첫 승리를 거뒀다.

주신수는 첫 안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기습적인 도루에 성공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SSG는 4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2021 솔(SOL) KBO리그 롯데와 개막전에서 '유평 라이벌' 롯데 자이언츠를 5-3으로 물리쳤다.

KBO리그 첫 경기를 치른 SSG 주신수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주포 최정과 지난겨울 자유계약선수로 영입한 최주환이 각각 홈런 두 방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SSG는 2회말 최정이 롯데 덴 스트레일리를 상대로 우월 솔로홈런을 뽑아 기선을제압했다.

롯데는 4회초 전주우 2루타와 이대호의 적시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SSG는 공수 교대 뒤 최정의 내야안타에 이어 최주환이 우월 2점홈런을 쏘아 올려 3-1로 달아났다.

롯데는 5회초 김준태가 솔로홈런을 날려 2-3으로 추격했다.

그러나 SSG는 8회말 최정과 최주환이 연속타자 홈런을 터뜨리며 5-2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롯데는 9회초 정훈이 솔로홈런을

날린 뒤 2사 만루의 기회를 이어갔으나 적시타가 터지지 않았다.

SSG 선발 아티 르위키는 6이닝 7피안타(1홈런) 3탈삼진 2실점(2자책점)을 기록하며 SSG 구단의 첫 승리투수가 됐다.

최주환은 4타수 3안타(2홈런) 3타점, 최정은 4타수 3안타(2홈런) 2타점 3득점으로 맹활약했다.

롯데 에이스 스트레일리는 6이닝 7피안타(2홈런) 2볼넷 탈삼진 5개 3실점(3자책점)으로 제 몫을 했지만, 타선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개막 두 번째 경기가 열린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7-4로 물리치고 2연승을 달렸다.

수원에서는 kt wiz가 배정대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한화 이글스를 3-2로 제압했다.

짧은 선수 위주로 세대교체에 나선 한화의 새 사령탑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아쉽게 첫 승을 놓쳤다.

창원에서는 김현수가 동점타와 역전타를 날린 LG 트윈스가 지난해 우승팀 NC 다이노스를 2-1로 꺾었다.

NC는 1회말 나성범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2021시즌 프로야구 1호 홈런이다.

잠실에서는 두산 베어스가 박건우의 역전 3점포에 힘입어 KIA 타이

거즈를 4-1로 제압했다. KIA는 3회초 2사 후 최원준의 3루타에 이어 김선빈이 중전 적시타를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끌려가던 두산은 8회말 선두타자 김재호가 좌전안타를 치자 보내기 번트에 이어허경민이 우전안타를 날려 1-1을 만들었다.

이어 타석에 나선 박건우는 KIA 세 번째 투수 장현식을 상대로 우측

펜스에 꽂히는 통렬한 3점홈런을 터뜨려 단숨에 4-1로 역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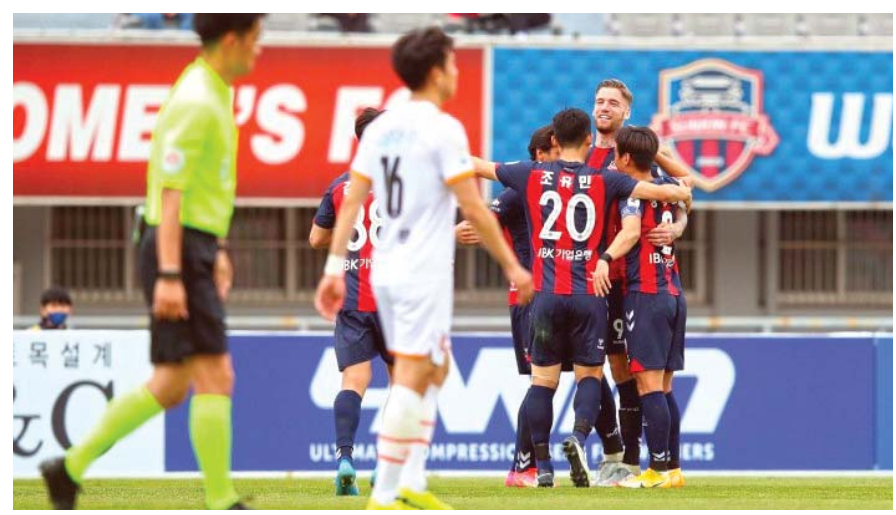
두산 선발로 나선 로켓은 5%이닝을 7안타 1볼넷 1실점으로 막아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올 시즌 처음 지휘봉을 잡은 김원형 SSG 감독과 류지현 LG 감독은 전날 홈월기 키움 감독에 이어 개막전에서 첫 승리를 신고했다.

연합뉴스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인천 SSG 랜더스와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5회말 SSG 공격 2사 1루 상황에서 1루 주자 SSG 주신수가 도루에 성공해 2루에 안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수원FC와 제주FC의 경기에서 수원의 라스 선수가 득점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 K리그1 승격 동기 수원에 '무릎' VAR에 두 차례 눈물... 1-2 패배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승격팀 간 맞대결에서 제주 유니타이트를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머쥐었다.

수원은 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라운드 홈 경기에서 라스의 선제골과 조유민의 극장 결승골에 힘입어 제주를 2-1로 꺾었다.

개막 후 K리그1 팀 중 유일하게 승리가 없던 수원FC는 7경기 만에 승리를 챙기며 승점 6(1승 3무 3패)을 쌓았다.

반면 개막 6경기 무패(1승 5무)를 이어가던 제주는 시즌 첫 패배를 맛보며 승점8을 유지했다.

제주는 전반 18분 만에 양쪽 윙어로 세운 22세 이하(U-22) 자원이 규혁과 이동렬을 동시에 빼고 제르소와 조성준을 투입하는 등 전방 압박에 힘을 실었다.

수원FC는 1분 뒤 전정호를 조상준으로 교체에 맞섰다.

점차 과열되는 분위기 속 전반 후반에는 두 차례의 비디오판독(VAR)으로 양 팀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반 34분 제주가 먼저 수원FC의 골망을 흔들었다. 중원에서 조성준

과 이창민이 수원FC 박지수의 공을 가로채 역습에 나섰고, 이창민의 침투 패스를 진성욱이 다시 패스한 뒤 안현범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VAR을 통해 박지수의 공을 빼앗는 과정에서 조성준의 반칙이 확인돼 '노골'이 선언됐다.

전반 45분에는 수원FC가 제주의 수비를 허물었다.

역습 과정에서 무리로의 패스를 받은 라스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원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당초 부심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으나, VAR을 거쳐 득점이 인정되면서 수원FC가 1-0으로 리드를 잡았다.

아쉽게 골을 놓친 제주는 후반 13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교체 투입된 주민규가 헤딩 슈트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그대로 승부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후반 45분 극적인 수원FC의 결승골이 터졌다.

윤영선의 패스를 받은 조유민이 골 지역 정면에서 원발 슈트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그러나 VAR 판독 과정에서 득점에 앞서 핸드볼 파울이 있던 것으로 확인돼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부모님 앞에서 쳐서 더 기뻐요”

김하성, 벽찬 MLB 첫 안타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사진)이 메이저리그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부모님이 지켜보는 앞이라 더욱 특별한 활약이었다.

김하성은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펙코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6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1삼진 활약을 펼쳤다.

개막전에서 한 타석을 삼진으로

물러났던 김하성은 팀의 개막 후 3번째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하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와 첫 타점, 첫 멀티히트 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김하성의 활약 속에 7-0으로 승리한 샌디에이고는 개막 3연승을 질주했다.

이날 펙코파크에는 김하성의 부모님이 직접 찾아 아들의 메이저리그 활약을 지켜봤다. 김하성은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안타를 쳐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제주·서귀포시청 전국대회 선전

제11회 김천전국수영대회

조성제·문재권·고민수 '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수영이 최근 열린 제11회 김천전국수영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서귀포시청 문재권은 이번 대회 남자일반부 평영 100m에 출전해 라이벌 조성제(제주시청)를 0.3초 앞지르며 금빛 물살을 갈랐다. 이어 남자일반부 평영 50m에서도 대회신기록인 27초52를 기록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팀 동료인 박재훈은 남자일반부 자유형 1500m에 출전해 15분57초03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주시청 조성제는 남자일반부 평영 200m에서 2분9초30으로 대회 타이 기록을 수립하며 금빛 물살을 갈랐고, 남자 일반부 평영 100m에서는 1분00초63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팀 동료 고수민도 여자 일반부 평영 100m에 출전해 1분3초18를 기록으로 울산광역시청 신영연(1분3초21)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 남자마라톤 심종섭 올림픽 출전권 획득

심종섭(30·한국전력)이 극적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심종섭은 4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2시간11분24초로 42.195km 레이스를 마쳐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2시간11분30초)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2시간11분24초는 심

종섭의 종전 개인기록 2시간12분57초를 1분33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심종섭은 경기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말 기쁘다. 훈련 때는 2시간 9분, 10분대 페이스로도 뛰었다”며 “4개월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쿄올림픽 본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심종섭이 기존 기록을 통과하면서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한국 남자마라토너는 두 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코로나블루 '슬기로운 대처법' '면역력 강화'

# 제23회 서귀포유채꽃 국제걷기대회

The 23rd Seogwipo Canola Flower International Walking Festival

2021. 4. 10 SAT ~ 4. 18 SUN

## 제주 월드컵경기장일원

Jeju World Cup Stadium

이번 제23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걸기로 코로나블루를 이겨내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기대회 일정	
2021년 4월 10일(토) ~ 18일(9일간)	
17km	09:00 ~ 11:00 제주월드컵경기장 ~ 법환해안도로 유채꽃길 ~ 외물개 ~ 호근마을 밭꽃길 ~ 혁신도시 ~ 제주월드컵경기장
6km	09:00 ~ 12:00 제주월드컵경기장 ~ 법환해안도로 유채꽃길 ~ 제주월드컵경기장
중요 : 16:00	

**참가 일정**

- ◇ 대회코스 : 6Km, 17Km
- ◇ 출발 : 행사기간 내 매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워크스루(walk through)방식으로 발열체크 및 방역 후 오전 9시 ~ 12시 출발(선착순 접수 5분간격으로 출발/개인별로 참가 확인 후 출발)
- ◇ 도착 : 매일 16시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에 도착, 도착확인
- ◇ 참가비 : 개인 10,000원
- ◇ 참가자 지급 : 기념티셔츠, 체크카드, 배번호, 완보중 (참가기념품은 출발시 현장에서 1회만 지급)

**주의사항**

- ◇ 65세 이상 노인, 만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참여 자제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주관 **서귀포시관광협의회**